

2015 / 07 / 02 (THU)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1%대 상승세. 당정 15조원 규모의 추경합의와 6월 제조업지표 호조로 외국인 기관 동반순매수. 6월 무역수지가 사상 첫 100억\$을 상회했다는 소식도 호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게임주가 급등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삼성SDS, SK C&C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LG이노텍, NAVER, 삼성SDI 약세.

종목별로는 방위산업 부분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삼성테크윈이 20.5%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625 억	SK하이닉스	-155 억
다음카카오	142 억	다우기술	-54 억
삼성테크윈	97 억	LG전자	-35 억
NAVER	76 억	삼성에스디에	-27 억
컴투스	36 억	코나아이	-19 억
엔씨소프트	35 억	NHN엔터	-11 억
삼성SDI	34 억	엠씨넥스	-11 억
LG디스플레이	33 억	덕산하이메탈	-10 억
블루콤	30 억	윌익IPS	-9 억
선데이토즈	27 억	파트론	-6 억
ISC	18 억	엠케이전자	-4 억
삼성전기	18 억	SK C&C	-4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528 억	삼성전자	-244 억
엔씨소프트	147 억	LG디스플레이	-117 억
NHN엔터	138 억	NAVER	-73 억
삼성에스디에	101 억	삼성SDI	-49 억
SK하이닉스	68 억	윌익IPS	-15 억
선데이토즈	60 억	마이크로컨텍	-10 억
사람인에이치	28 억	서원인텍	-9 억
SK C&C	27 억	테크윙	-8 억
다우기술	25 억	하나마이크론	-7 억
컴투스	25 억	파트론	-7 억
LG전자	24 억	LS	-7 억
크루셜텍	17 억	이명텍	-6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746.65	0.1%	-11.1%
DDR3 2Gb (Spot)	1.51 \$	0.0%	-31.7%
NAND 64Gb (Spot)	2.60 \$	0.0%	7.4%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00.51	1.6%	-6.2%	801 억	354 억
KRX Semicon	1,913.92	1.2%	2.0%	458 억	-155 억
(코) 반도체	999.64	1.2%	25.4%	9 억	3 억
(코) IT H/W	416.86	1.4%	19.6%	38 억	-6 억
(코) IT S/W	2,386.78	4.8%	19.4%	237 억	673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95,000	2.1%	-2.4%	625 억	-244 억
LG전자	47,800	1.3%	-19.1%	-35 억	24 억
삼성SDI	112,500	1.4%	-3.0%	34 억	-49 억
삼성테크윈	35,300	20.5%	48.0%	97 억	15 억
서울반도체	16,200	1.3%	-19.8%	-4 억	3 억
신도리코	63,900	-0.5%	-5.8%	0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2,800	1.2%	-10.4%	-155 억	68 억
이오테크닉스	96,900	3.2%	-22.7%	-1 억	1 억
윌익IPS	13,900	-2.1%	-0.4%	-9 억	-15 억
리노공업	51,200	0.6%	33.7%	-1 억	10 억
유진테크	16,000	0.0%	-0.9%	-3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3,500	1.5%	-10.2%	-27 억	101 억
SK C&C	282,500	2.2%	32.3%	-4 억	27 억
포스코 ICT	5,350	0.2%	0.9%	4 억	0 억
다우기술	28,150	1.6%	135.6%	-54 억	25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28,000	-0.9%	-11.8%	76 억	-73 억
다음카카오	136,600	8.2%	10.5%	142 억	528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450	-1.5%	-24.4%	33 억	-117 억
에스에프에이	49,000	-0.4%	-1.3%	-4 억	5 억
솔브레인	49,050	0.4%	52.6%	-4 억	7 억
덕산하이메탈	11,200	3.7%	0.4%	-10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2,200	2.2%	-4.6%	18 억	1 억
LG이노텍	101,500	1.0%	-9.8%	7 억	2 억
파트론	8,540	0.8%	-27.3%	-6 억	-7 억
루멘스	4,660	0.3%	-33.9%	0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8,720	0.7%	27.9%	1 억	-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09,500	5.5%	15.1%	35 억	147 억
컴투스	135,000	9.0%	-0.4%	36 억	25 억
NHN엔터테인먼트	64,000	7.4%	-26.9%	-11 억	138 억
게임빌	95,200	10.2%	-21.1%	10 억	5 억
위메이드	38,250	6.0%	1.2%	1 억	10 억
선데이토즈	19,200	17.1%	11.6%	27 억	60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1,900	3.0%	422.4%	2 억	1 억
한글과컴퓨터	17,950	-0.3%	-11.1%	1 억	1 억
코나아이	33,250	0.8%	-1.3%	-19 억	2 억
슈프리마	23,000	0.0%	-9.6%	1 억	-5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9.74	0.7%	1.9%
MSCI Internet	160.76	0.5%	5.3%
MSCI Software	164.69	0.6%	0.7%
MSCI Semicon	212.67	0.5%	-3.4%
MSCI IT Services	123.42	1.1%	4.8%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3.30	0.6%	2.4%
Facebook	86.91	1.3%	11.4%
Tencent	154.70	0.0%	37.5%
Baidu	198.71	-0.2%	-12.8%
Yahoo	39.33	0.1%	-22.1%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4.45	0.7%	-4.3%
Oracle	40.24	-0.1%	-10.5%
SAP	70.37	0.2%	1.0%
EMC	26.42	0.1%	-11.2%
Symantec	23.21	-0.2%	-9.5%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6.60	0.9%	14.7%
Nokia	6.84	-0.1%	-13.0%
Lenovo	10.74	0.0%	5.3%
ZTE	19.72	0.0%	17.1%
HTC	75.2	4.4%	-47.0%

Semicon	close	1D	YTD
Intel	30.18	-0.8%	-16.8%
Qualcomm	62.90	0.4%	-15.4%
Texas Instruments	51.91	0.8%	-2.9%
Micron	18.78	-0.3%	-46.4%
Toshiba	420	-0.4%	-18.1%
Renesas	861	-1.6%	4.6%
STMicro	8.07	-0.6%	8.0%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4.49	1.1%	2.5%
HP	30.52	1.7%	-23.9%
Accenture	98.06	1.3%	9.8%
Fujitsu	678	-0.9%	5.3%
NTT Data	5,320	-0.6%	17.8%
CSC	65.92	0.4%	4.6%

Hardware	close	1D	YTD
GE	26.66	0.3%	5.5%
Panasonic	1,690	0.5%	18.4%
SONY	3,472	0.3%	40.4%
Whirlpool	171.00	-1.2%	-11.7%
Electrolux	263.20	1.3%	15.0%
Haier	20.90	0.0%	13.2%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840	2.2%	64.8%
KYOCERA	6,326	-0.6%	13.9%
Nidec	9,387	2.4%	19.6%
TDK	9,340	-0.3%	30.4%
Ibiden	2,077	0.3%	16.2%

Display	close	1D	YTD
Sharp	151	1.3%	-43.7%
Japan Display	462	0.2%	24.9%
AUO	4.45	-0.2%	-12.6%
Innolux	16.10	0.0%	4.5%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테크윈	20.5%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에서 한화로, 한화테크윈, 시너지 기대에 추가 급등

삼성과 한화의 '빅딜'에 따라 한화의 품에서 새 출발에 나선 삼성테크윈의 주가가 급등세. 내부적인 반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한화그룹의 모태가 방위산업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호재로 작용.

앞서 한화테크윈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종전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변경. 이에 따라 한화테크윈을 비롯한 4개사의 매각·인수 가액만 1조9천억원에 달했던 삼성과 한화간 빅딜 작업도 작년 11월 26일 발표 이후 7개월 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빅딜로 한화그룹의 모태인 방위산업 부문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로 매출 규모가 2조6천억원대로 불어나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다. 다만 그동안 매각 위로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간 협상이 차질을 빚어 앞으로도 기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도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 노조원들과 소액주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 주총이 오후까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사업 정상화 지연, 내부적인 반발 등 불확실성이 크지만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 것도 사실.

한화테크윈의 시가총액은 1조5천600억원으로, 한국항공우주 등 보유지분 가치가 1조2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 장기적으로 한화와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방위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승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

보안 솔루션과 반도체 시스템, 압축기 등 비주력 분야의 구조조정 여부, 한화와 방산 분야 시너지 전략, 항공기 부품 육성 전략, 자회사인 탈레스의 활용 방안 등 새로운 비전과 경영 전략이 향후 주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게임빌	10.2%	최근이슈

News & Issue

게임빌, 유럽 법인 설립, 현지 시장 공략 본격화

게임빌이 유럽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1일 게임빌은 이를 위해 유럽 현지 법인 '게임빌 유럽'을 설립했다고 밝힘. 독일 베를린에 설립한 '게임빌 유럽(GAMEVIL Europe GmbH)'의 유럽 총괄 책임자로 데이비드 모어(David Mohr)를 지사장을 선임.

게임빌 유럽의 인력은 총 20여명으로 현지 고객 서비스와 커뮤니티 관리부터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지역 최대 7개 국가 언어 지원 및 마케팅을 펼칠 예정. 이에 앞서 지난해 게임빌은 싱가포르와 대만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바 있음.

게임빌 관계자는 "유럽에서 '몬스터워로드'가 장기 흥행 중이며, 최근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과 '드래곤 블레이즈'까지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2개 지역을 거점으로 글로벌 리딩 퍼블리셔로서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언급.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디스플레이	-1.5%	실적전망

News & Issue

LG디스플레이, 하반기 실적 악화 전망

LG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분석에 주가가 약세.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것은 물론 시장 컨센서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PC수요부진, 신규라인 가동에 따른 일시적 비용발생 등이 예상되기 때문.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4,900억원. 2분기 영업이익률은 6.7%로 전분기 10.6%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하반기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14.2조원, 영업이익은 35% 감소한 7,132억원으로 예상.

유럽 및 신흥국 소비위축 영향에 따른 하반기 TV 수요감소가 예상되고 중국 8세대 신규라인 가동에 의한 TV 패널 가격 하락, PC 재고 증가로 성수기 효과 부재 등이 실적부진의 주요인.

삼성전자, 1분기 D램 시장서 고공행진, 마이크론 부진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D램 시장에서 '나홀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SK하이닉스도 작년 1분기 대비로는 20% 가까이 매출을 늘리며 선방. 한편 D램 주요 3사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장 부진.

1일 IH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D램 시장 규모는 119.6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 성수기인 4분기와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4.9% 감소. 삼성전자는 1분기 52.8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20.2%, 전분기 대비 0.5% 성장한 수치로 모두 시장 성장률을 상회.

1분기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4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시장점유율은 2011년 3분기(4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SK하이닉스도 지난 1분기 33.0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분기 대비 8.9% 매출이 줄었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19% 증가한 수치. 시장점유율은 27.6% 기록.

반면 마이크론은 부진. 1분기 마이크론의 D램 매출은 25.37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9.9%,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1분기 마이크론의 시장점유율은 21.2%로 분기 D램 시장점유율은 일본 엘피다 인수 완료 후 2013년 4분기 28.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로는 매 분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20나노 D램을 최초로 양산한데다 그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SK하이닉스도 25나노 안팎의 2y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마이크론은 아직 3x(32나노 안팎), 2x(28나노 안팎) 공정 비중이 높아 물량 공급, 이익률 측면에서 가장 뒤쳐진다"고 설명.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7월 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7월 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